

[ 사회 ]

■ 해남 미황사 7박8일 출가수행 16명의 山寺체험



미황사에서 열리고 있는 7박8일의 출가수행.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주지 금강 스님의 법문(法問)을 듣고 있다. /곽선정기자 ksj@kwangju.co.kr

휴대전화 끄니... '마음의 소리'가 들렸다

“휴대전화를 끄니 ‘마음의 소리’가 들렸다” 깊은 산사(山寺)로 떠난 사람들은 문명의 이기(利器)를 맨 먼저 던져버렸다. ‘나’를 몰아매던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니 가슴 속 본래의 ‘나’가 보이고, 주변 사물의 모습과 외침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을 끊임없이 갈구하던 이들이 7박8일의 출가수행에 나섰다. 해남 달마산 미황사(美黃寺·해남군 송지면)에서 15~22일까지 열리는 ‘참 사람의 향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서울·익산·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16명의 참가자는 ‘나를 되돌아 볼 기회’를 갖기 위해 모였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휴가를 내고 온 사람도 많았다. 세속의 상징인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고 승복으로 갈아입으면서 여유를 느낀 표정들이었다.

짧은 자기 소개와 사찰 예절 습의(習儀) 후 곧바로 묵언(默言) 수행에 들어갔다. 참가자들은 수행기간 동안 절대 말을 해서 안 된다. 묵언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나와의 대화’. 세속의 소리에서 벗어나 바람소리·새소리·물소리 등 자연의 소리가 들렸다. 잠깐 동안에 적막함은 친구가 되기 시작했다. 가부좌·합장 등 불자의 자세와 행동을 배우고 나니 어느 자네 예불 시간이 됐다. “그릇이 가득 차있으면 향기로운 차를 담을 수 없듯 비워야할 내 그릇을 비우는 것이 ‘절’이라는 주지 금강(金剛) 스님의 말을 떠올리면서 절을 올렸다.

본격적인 참선이 시작됐다. 반가부좌를 하고 앉아

“  
문명의 이기 던져버리자  
본래의 ‘나’가 보이고  
울아댤던 것들로부터  
한없이 자유로워졌다  
”

있었더니 다리가 금방 저려와 집중이 되지 않았다. 금강 스님은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다리에 신경을 쓰니까 다리가 저리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집중하세요”라고 말했다.

수행 이틀째인 16일 새벽 4시. 예불을 끝내고 참선에 들어갔지만, 저절로 감기는 눈에 자세가 흐트러지기 일쑤였다. 금강스님의 죽비 소리에 정신을 차리기를 여러 번. 생각과 달리 몸은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간단한 산책과 아침공양, 다도가 이어졌다. 오전 9시부터는 포행(布行·천천히 걸음을 옮기면서 수행하는 방법)이다. 따뜻한 햇볕과 달리 산을 넘어오는 바람은 차가웠다. 하지만 참가자 모두 한마디 불평도, 징크림도 없이 수행을 마쳤다. 오히려 조금씩 후련해진 표정이었다. 참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은 그렇게 오는 22일 회향식(回向式)까지 계속된다.

대전에서 온 주부 박찬자(38)씨는 “서투르고 어렵기는 하지만 수행을 통해 참된 나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8일 후 달리진 내 모습이 기다려진다”고 했다. 기자의 질문에 말 대신 메모지에 적어준 글이다.

미황사의 ‘참사랑의 향기’는 오는 6월부터는 매달 셋째 주 토요일 열린다. 문의는 홈페이지(www.mih-wangsa.com).

/곽선정기자 ksj@kwangju.co.kr

가정용 즉속기 절반이 불량

식약청, 22개제품 적발 폐기 조치

온수와 진동으로 발을 자극해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가정용 즉속기 제품의 절반 이상이 안전성과 성능 기준에 미달돼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 유통 중인 전체 46개 즉속기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22개 제품을 자진회수, 폐기하도록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온도 상승 기능 등 성능이 떨어지는 4개 제품에 대해서는 기능을 개선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에 따르면 적발된 즉속기 중에는 전압 과부하 방지를 위해 전기 퓨즈가 2개 들어 있어야 하는데 1개 밖에 없는 등 전기적·기계적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제품이 22개나 됐다. 제 시간에 물의 온도를 올리지 못하거나 진동수가 떨어지는 성능 결함 제품도 4개나 됐다.

식약청은 하지만 인체 위험이 큰 전기누전 시험에서는 모든 제품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대학생 47% '벼락치기 공부'

하루 겨우 1~3시간 공부 취업사이트 등 설문조사

전남대가 17일 중간고사 시험에 들어갔다. 오는 21일까지 계속되는 중간고사 기간 동안 도서관의 자리를 잡기 힘들고, 전공과목 공부를 위한 그룹 스터디 멤버를 모집하는 학생들도 많다.

이 학교 3년 김모(21)군은 그러나 태평하다. 시험 전날 밤 하루만 날새기로 공부하면 최소 B학점 이상을 딸 수 있다고 자신하기 때문이다. 김 군과 같은 생각은 요즘 대학생들의 보편적인 모습인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대학 매거진 ‘쌍궁’과 취업사이트 ‘파워잡이’ 대학생 397명을 대상으로 ‘공부 스타일’에 대해 물어본 결과 47.1%가 시험 하루 전에 공부하는 ‘벼락치기 형’이라고 답했다.

매일 꾸준하게 열심히 공부하는 ‘개미 형’은 28.5%에 그쳤다. 밤에 주로 공부하는 ‘올빼미 형’이라고 답한 학생도 17.4%나 됐다. 응답자들은 또 하루 평균 4시간 이상(38.8%) 공부해야 한다고 답했지만, 실제 공부에 들이는 시간은 평균 1~3시간(5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혜기자 lsb54@kwangju.co.kr

'지방교육자치법' 반대 천막농성

교육단체, 개정안 비판

교육청과 전교조 등 교육단체와 전국 시도교육위원회의 의장협의회 등 교육단체들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천막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농성 돌입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개정안은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로 통합하고 교육위원을 정당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방식을 담고 있어 교육을 정략적 도구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일부 국회의원들이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의 통과를 공언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자처 수호를

위해 무기한 천막농성을 시작한다”며 “교육부와 국회가 교육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규모 집회를 벌이고 교육부 장관 퇴진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원회’ 총학생회장 25명도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정책 확고 등을 당국에 촉구하기 위해 이날부터 단식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은 단식 농성과 함께 1인 시위와 삼보일배, 촛불 문화제 등을 통해 ▲교육재정 국내총생산(GDP)대비 6% 확보 ▲무분별한 대학 구조조정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포근한 한낮**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맑은 뒤 밤부터 흐려지겠다.

**4월 18일**  
(음 3월 21일)  
◇전국날씨

광주	맑은 뒤 흐려짐	9~22℃
대전	맑은 뒤 흐려짐	10~21℃
대구	맑은 뒤 흐려짐	10~19℃
부산	맑은 뒤 흐려짐	9~20℃
서울	맑은 뒤 흐려짐	9~22℃
인천	맑은 뒤 흐려짐	7~21℃
울릉도	맑은 뒤 흐려짐	6~22℃
제주	맑은 뒤 흐려짐	7~20℃
목포	맑은 뒤 흐려짐	6~22℃
여수	맑은 뒤 흐려짐	8~20℃
전주	맑은 뒤 흐려짐	10~20℃
광주	맑은 뒤 흐려짐	8~23℃
대전	맑은 뒤 흐려짐	8~23℃
대구	맑은 뒤 흐려짐	5~23℃
부산	맑은 뒤 흐려짐	8~23℃

서울날씨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1.5~2.5m  
뒷바다=남서~서풍 파고 2.0~3.0m  
남해날씨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1.0~2.0m  
뒷바다=남서~서풍 파고 1.5~2.5m  
목포 밀물 < 04:58 썰물 < 10:10  
16:47 22:07  
여수 밀물 < 11:29 썰물 < 05:38  
---:-- 17:25

▲해돋이 05:57 ▲해질 19:07 ▲달뜨기 08:26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9(수)	20(목)	21(금)	22(토)	23(일)	24(월)
날씨						
최저/최고	12/16	6/17	5/22	9/22	11/15	11/19

세무사 영어 6개문항만 재시험

국세청 7월9일 이전 실시

국세청은 전체 40문항 중 6개 문항에서 오류가 발생한 제43회 세무사 1차 자격시험 영어과목의 6개 문항에 대해서만 재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국세청은 17일 “전날 처리된 세무사시험 영어과목에서 오류가 발견됨에 따라 문제가 된 영어과목 B형 시험문제 6개 문항에 대해 세무사 2차 시험(7월9일) 전에 재시험을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영어시험 A형 문제가 인쇄안료류 B형 인쇄중 인쇄관 일부가 손상돼 이를 다시 제작하는 과정에서 A형 문제 일부가 포함되면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전체 5천766명의 수험생에게 미치는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며 B형 영어시험 응시자 중 500여 명이 재시험을 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남악 신도청 방문객 10만명 돌파

새 관광명소 부상

전남도청 신청사를 찾은 방문객이 개청 이후 6개월 만에 10만 명을 돌파하면서 남악 신도청이 새로운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전남도는 17일 “전남도청이 지난해 10월 17일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 신도청으로 이전한 이후 6개월 만에 10만 번째 방문객을 맞는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주말과 휴일의 경우 최고 2천여 명이 넘는 방문객이 몰리는 등 최근 6개월간 하루 평균 560명이 신청사를 방문했다.

지역별로는 영암과 목포, 해남 등 전남도 내 서남권 지역 주민들이 방문객의 47%를 차지했으며, 타 시·도에서도 8천여 명이 신청사를 구경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청사를 찾은 10만 번째 방문객이 된 윤홍화 씨(56·고흥군)는 “전남에서 가장 높다”는 신청사를 누구나 와 보고 싶어한다”며 “뜬근 대로 잘 지어졌고, 또 명당에 자리 잡은 것 같다. 이제는 뒤떨어진 전남을 앞서가는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 도청 공무원들이 더욱 열심히 일해 달라”고 주문했다.

**2007년도 수능시험 원형 파악을 목표로 하는 강좌**

**위재권 초·중·고 교육과정**

서울대 대학원 교육학 전공의 정경과 강의 특색이 살아있는 **교육학개강 5월 6일**

전공 **국어** 전공 **영어** 전공 **수학** 전공 **인사** 전공 **법학** 전공 **생물** 전공 **물리** 전공 **미술** 전공 **체육** 전공 **임대선**

www.naeyoung.com

**대한민국 경찰 드림팀 광주 상륙!!!**

노랑진 경찰학원 그명성 그대로... **김재규 경찰학원 탄생**

**개강 5월 1일**

**김재규 경찰학원 최고의 교수진**

- \*경찰학 개론: 김재규 교수 \*수사:곽대영 교수
- \*영어:오순아 교수
- \*형법:윤경근 교수 \*형소법:윤경근 교수

www.police3112.com

hanbitgosi.co.kr

=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시험대비 =

**공무원 첫진도·교정직특채**

개강: 5월 1일 전문강사, 전문강사진의 명쾌한 강의로 당신의 합격률 높여드립니다.

**한빛공무원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서 전남여고 건너편 ☎ 234-0234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전국 특·월·출·신 수석 승은 은 보 **96.7**

**5월 1일 첫진도 시작반**

합격률 1위에 이은 또 하나의 쾌거!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광주지역 합격자 384명 중 **본원출신 307명** 합격!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광주지역 합격자 623명 중 **본원출신 498명** 합격!

**광주고시학원** www.gwangjugosi.com ☎ 227-8003

**경찰공무원 멈추지 않는 합격신화!!**

김재규 경찰학원 드림팀을 광주에서 직접 만나 시범반입니다.

**광주 김재규 경찰학원** 전남여고앞 ☎ 236-3111

주간 첫진도 개강: 4월 15일  
야간 첫진도 개강: 4월 17일

**2006년 법무부 교정직 9급(교도) 특별채용 1,000명!!**

= 20세~40세 (직장인 공무원 퇴직후의 절호의 기회) =  
특채 시험과목: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경찰직 준비생 절호의 기회(2과목만 하면된다.)

**무등고시학원** 동부경찰서 ☎ 222-4560